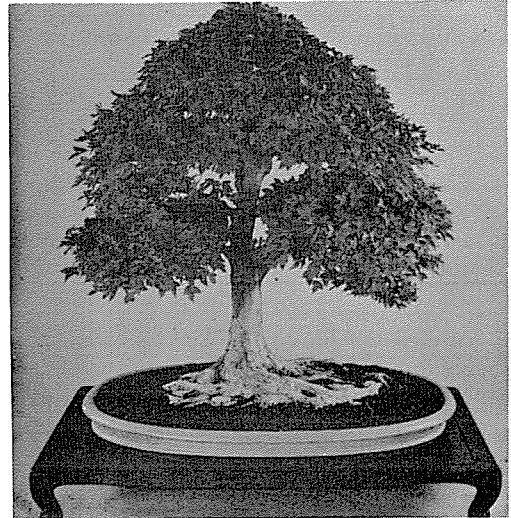


盆栽 [6]

당단풍 (唐丹楓)

한국분재연구원
(0343-43-6367)
원장 안형재



- 단풍나무과 - 學名: Acer Pseudo-sieboldianum

우리나라가 原産地인 당단풍 나무는 잎이 비교적 작고 9~11 개로 갈라지며 가을의 단풍이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내한성(耐寒性)이 강하고 이식(移植)이 용이하므로 화분에 심었을때 새로운 뿌리의 발달이 좋고 맹아력(萌芽力)이 왕성하므로 가지가 쉽게 형성되어 분재의 소재로써 널리 활용되는 나무이다.

가을철에 단풍이 곱게 물들여지는 이유는 기온이 점차 내려감에 따라 엽록소(葉綠素)가 분해해서 화청소(花靑素)가 생기는 때문이고 노랗게 되는것은 화청소가 분해해서 엽황소(葉黃素)가 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해 작용에는 광선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가을하늘이 맑은 여건에서는 단풍이 참으로 아름답게 되므로 늦 푸른 가을하늘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기도 하고 그야말로 만상홍엽(晩霜紅葉)은 2월화(二月花)보다 붉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여 옛시인 金天澤은 이렇게 읊기도 했다.

흰구름 푸른니는 골골이
좀겼는뒤
秋霜에 무든 丹楓 꽃도곤더
도해라
天公이 날을 爲호야 毘빛츨
꿈여 니도다.

1. 번식법(繁殖法)

실생, 삽목, 취목에 의해 번식한다. 삽목의 경우는 5~6월경 건강한 상순을 잘라서 녹지삽(綠枝插)을 하고 취목은 6~8월 사이에 실시하되 장마철이 가장 좋다.

2. 배양토(培養土)

3~4% 정도 크기의 토양입자(土壤粒子)를 사용한다.

3. 물 주기

물주기는 보통 분재와 같이 실시하는 것이 좋다. 즉 봄, 가을에는 1일 1회, 여름철에는 1일 2회, 겨울철에는 3~4일에 1회 정도의 기준으로 건조상태를 관찰해 가면서 관리한다.

4. 비료주기

주로 잎을 감상하는 수종이므로

로 질소질 비료성분이 너무 많으면 가지의 마디가 드물게 되고, 모자라면 황엽(黃葉)현상이 나타나므로 3~9월에 각각 한차례씩 알거름을 주는것이 좋다.

5. 알맞는 수형 및 전정

줄기가 굵고, 강하며 수피(나무껍질)가 얇기 때문에 철사걸이를 하게되면 잘 부러지고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직간의 원형 수형이 일반적이고 어린묘목은 합식에 적합하며 취목소재는 돌붙임(石付)에 많이 활용된다. 건강한 나무의 경우 6~8월중에 한차례 잎따기를 하면 잔가지도 많이 생기고 가을의 단풍도 아름답게 물든다.

6. 병충해

병으로는 검은무늬병, 흰가루병이 있는데 다이센 Z-78 400-800배액을 살포하고 총해로는 깎지벌레가 있다. 스프라 사이드 1,000배액으로 구제한다.

(다음호는 피라칸사스 분재가 연재됩니다)